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생활만족도¹⁾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ouseholds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李 善 衡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부 교수 李 蓮 淑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Lee Sunhy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ociate Prof. : Lee Yonsuk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V. 연구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고찰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ouseholds using System's Approach.

1)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was influenced by age, present job, husband's job before retirement, assets, family income, living expenses, experiences of financial management.

2) Financial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age, present job, husband's job before retirement, assets, family income, living expenses, experiences of financial management, and assessment of family financial conditions.

3)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input variables on the throughput variable showed that age of respondent and the middle age experiences of financial management emerged as predictors of financial management. These variables

1)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accounted for 48% of variance in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4) When financial satisfaction was regressed against input and throughput variables, 55% of the total variance of the financial satisfaction was explained by financial goal and assessment of family conditions.

I. 문제의 제기

산업화 이후의 우리 나라 가족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는 노인 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950년대 중반의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이들은 2010년대가 되면 노년기에 들어선다. 이는 노인 인구의 수가 지금보다 더 빨리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1995년에 60세 이상인 노인의 비율은 7.6%이고 65세 이상은 5.0%에 이른다. 2000년대가 되면 60세 이상이 10.2%, 65세 이상이 6.8%로 증가하여 우리 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89)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에게 가장 힘든 것은 '돈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고, 노인의 이러한 경제 상태는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여러 연구에서 발견되고 있다(박계범, 1985; 김종숙, 1987; 한임섭, 1987; 박충선, 1990).

그런데 최근에는 노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구를 형성하는 노인단독가구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는 전체 노인의 7%에 불과했지만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1990년에는 그 비율이 28%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35%가 노인 단독 가구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박정아, 1994).

이렇게 단독가구를 형성한 노인의 경우 교육 수준이나 경제 상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낮지만, 경제생활만족도는 오히려 더 낮은 것(백종식, 1991)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경제생활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인 단독가구의 재정관리와 경제생활 만족도를 체계론적 접근법을 통하여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들 노인의 가계재정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II. 이론적 고찰

1. 노인단독가구의 개념 및 생활특성

노인에 대해서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 이를 측정하는 조작적(操作的) 정의에도 역연령(歷年齡)에 의한 정의, 사회적 연령에 의한 정의, 생물학적 연령에 의한 정의 등으로, 노인의 연령은 여러 가지로 정의·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의 모든 연구가 역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측정하였고, 여러 공공 기관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유일한 측정 변수로 역연령을 선정하고 있다. 세계 공식 기관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고 인구통계학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은 연구(박계범, 1985; 한임섭, 1987; 박충선, 1990; 이성림, 1990; 이기현, 1994)에서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 60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져 역연령 60세 이상의 사람을 본 연구에서는 노인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단독 가구라고 하면 가족이 없이 1인 독신으로 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 부양이 전통적으로 동거 자녀에 의해 이루어져 온 점을 고려해 볼 때, 노인 부부만이 가구를 이룬 노인부부가구도 동거자녀가 없다는 점에서 단독가구에 포함될 수 있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따라서 노인단독가구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및 친족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 또는 부부로 만 1개월 이상 독립된 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김태현, 1994)로 정의한다.

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특성을 자녀동거노인과 비교하면, 단독가구의 노인은 자녀동거노인보다 교육수

준이 높으며, 유배우자인 경향이 있으며, 취업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백종식, 1991). 또한 노인단독가구의 실제 수입이 약간 더 많으나 자녀동거노인보다 경제생활에 약간 덜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백종식, 1991). 노인단독가구의 절대적인 수입액의 경우 자녀동거노인에 비해 많다고 하나, 이 액수의 대부분이 생활비로 지출된다면 상대적인 생활의 질은 노인단독가구가 더 낮을 수가 있다.

2. 노인단독가구의 재정관리 체계

1) 노년기의 재정관리 특성

노년기의 재정관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른 생애주기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첫째, 이들의 자산 유형에는 유동(流動) 자산보다 부동산(不動) 자산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노년기에는 부동산 자산(주택의 純價, 자동차 등)이 다른 생애 주기에 비해 많지만 이 부동산 자산은 실제 소비를 위해 이용하기가 어렵다(Rander, 1989). 따라서 실제 소비를 위한 유동자산이 적어 소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둘째, 60세 이상에는 퇴직자가 많으므로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재산소득, 연금, 혹은 저축 등이 이들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생애주기가설에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은퇴기에는 그 전에 모은 자산을 소비하는, 즉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단계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증연구(Hogarth, 1989)에서 위와 같은 유형을 보이는 가계는 4.2%에 불과하고 여러 다양한 유형의 수입과 지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기에는 어느 단계보다도 여러 유형에 따른 재정관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재정계획 중 장기 계획의 측면에 있다. 다른 생애 주기에 있는 경우 노후 계획이 중요한 장기 계획에 해당되지만 이미 노년기에 들어선 이들의 경우 노후 대비는 할 필요가 없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수명이 다할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유산상속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특성으로 인해 노년기에는 다른 생애

주기와는 다른 재정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재정 관리 행동을 투입, 과정, 산출이라는 체계론적 개념 틀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노인단독가구의 재정관리체계

노년기의 여러 재정관리 형태와 경제생활의 문제점을 미루어 볼 때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노인단독가구의 재정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서 노년기의 재정관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관리 체계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① 투입과 과정과의 관계

과정 요소는 투입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재정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나이, 결혼 상태, 교육 수준, 재정관리지식, 상황적 요구 등의 투입 요소가 재정관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itus, Fanslow와 Hira(1989)는 재정관리의 계획 행동에 재정관리지식,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요구 등과 같은 투입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eutler와 Mason(1987)의 연구에서는 젊을수록, 결혼을 한 상태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상황적인 요구가 높을수록, 예산을 정교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표(199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소비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릴 때 소비 경험이었다.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학습된 소비 경험은 유년 시절의 학습과 모방으로 소비 습관이 학습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② 투입과 산출과의 관계

산출 요소는 투입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목표 지향 지수, 나이, 퇴직전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 현재의 직업, 가계소득, 주관적 경제수준평가 등의 투입요소가 경제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지수는 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가 있는데, Heck(1983)는 이 둘간의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목표지향지수가 클수록 산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관리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김숙이(1988)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는 열망성취도, 가계소득, 여가생활, 가계능력인지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쳤다. 김연정(1991)의 연구는 주관적 재정 복지를 가계소득적정도, 재정문제곤경도, 재정안정도로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것은 열망성취도, 1인당 소득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평가는 자신이 가진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변수가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Davis와 Helmick, 1985; Davis, 1992; 김연정, 1991; 이종혜, 1993). Campbell, Converse와 Rodger(1976)의 만족 모형에 의하면 객관적 자원 상태는 자원 상태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자원 상태에 대한 만족이 다시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주관적 경제수준평가가 복지감에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 주었다. 그러나 경제적 만족도에는 이 주관적 경제수준평가 변수와 함께 직업, 소득, 학력 등 객관적인 경제적 자원 변수도 여전히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③ 과정과 산출과의 관계

재정 관리의 산출 요소는 투입 요소와 과정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재정 관리의 과정 요소와 산출 요소와의 관계를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연정(1991)과 박미금(1993)의 연구에서 재정관리 과정은 산출에 대한 설명력을 약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김순미(1989)의 연구에 의하면 재정적 만족의 회귀 방정식에 재무관리가 포함될 때 그 설명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관리체계에서 과정 요소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Beutler와 Mason(1987)은 기록에 의한 예산 설정이 순자산에 대한 만족도, 큰 위협의 지각에 대한 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만족도가 금전관리과정(budgeting)을 통해 즉각적으로 높아진다

기 보다 장기간에 걸친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Titus와 그의 동료들(1989)의 연구에서 과정이 재정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계획 행동은 재정 만족을 증가시키지 않았지만 수행 행동은 재정 만족을 증가시키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재정 관리라는 과정 변수는 소득이나 가구주의 직업 등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 열망성취도, 순소득 등의 영향력에 비해 그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약하게 경제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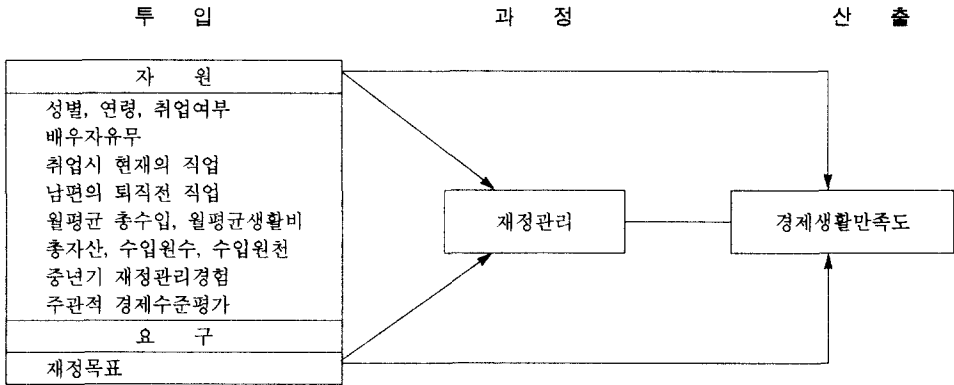
Ⅲ .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도시 노인단독가구의 재정관리는 요구와 자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도시 노인단독가구의 경제생활만족도는 요구와 자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도시 노인단독가구의 경제생활만족도는 재정관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도시 노인단독가구의 재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 <연구문제 5> 도시 노인단독가구의 경제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2. 연구모형

〈그림 1〉 경제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모형



IV. 연구 방법

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노인단독가구이다. 본 조사에 앞서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 25명을 대상으로 1995년 3월 15일에서 3월 26일에 걸쳐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부 문항과 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5년 4월 1일에서 4월 16일에 걸쳐 총 136명의 노인단독가가와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장소는 노인이 많은 파고다공원, 사직공원, 올림픽공원, 롯데월드(잠실점) 지하, 경복궁, 8개 노인정, 3개 노인대학에서 가장학을 전공한 면접원 1인과 함께 면접하였다. 위의 장소에 잘 오지 않는 단독가구 여자노인과 고소득층 노인은 유의표집하였다. 조사방법이 면접법이었으므로 136부를 전부 분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2. 조사도구의 구성

1) 투입변수

요구변수는 재정목표 즉, 노인단독가구의 재정관리자가 의, 식, 주, 건강, 기타 생활 영역에서 지금보다

얼마나 더 소비하고 싶어하는가와 얼마나 더 재산이나 생활 수준이 달성되기를 원하는가로 측정하였다. 각 영역별로 총 17개 문항을 '아주 원한다' 1점, '약간 원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거의 원하지 않는다' 4점, '전혀 원하지 않는다' 5점의 응답 형태를 갖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분석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한 값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생활에 대해 원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 변수의 Cronbach α 계수는 .85였다.

자원변수는 총 11개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수와 경험변수, 주관적 경제수준평가변수로 구성된다.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남편의 퇴직전 직업, 현재의 취업 여부, 취업시 현재의 직업, 총자산, 월평균 총수입, 월평균 생활비, 수입원 수, 수입원천이다. 이의 측정도구는 〈표 1〉과 같다.

경험변수는 중년기 재정관리경험으로 중년기때 얼마나 재정관리를 잘했는가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총 3문항이며, '매우 그렇다' 1점, '대체로 그렇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거의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의 응답 형태를 갖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분석에서는 역코딩한 값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년기때에 재정관리를 잘했음을 의미하며, 이 변수의 Cronbach α 계수는 .64였다.

주관적 경제수준평가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가계의

〈표 1〉 인구·사회학적인 배경의 측정도구

변 수	측 정
남편의 퇴직전 직업	① 무직, 단순노무자 ② 숙련노동, 서비스직 종사자, 소매상점원, 자영상공업 ③ 사무직, 의료보조원, 경찰 및 보안종사자 ④ 전문직 대기업주, 정부의 고위관리 직업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취업 여부	① 단순노무자 ② 숙련노동, 서비스직 종사자, 소매상 점원, 자영상공업 ③ 사무직, 의료보조원, 경찰 및 보안종사자 ④ 전문직, 대기업주, 정부의 고위관리
취업시 현재의 직업	현재 규칙적으로 혹은 비규칙적으로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직업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총자산	예금, 적금, 보험, 채권, 주식, 사채준 것, 토지, 상가, 살고 있는 집 (자식에게 명의 이전한 집 제외), 귀금속, 골동품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월평균 총수입	세, 이자배당금, 자식들의 원조, 근로소득, 연금, 국가자선단체, 기타의 수입을 모두 합한 금액
월평균 생활비	한달 평균적으로 생활에만 들어가는 금액
수입원수	수입원천의 수
수입원천	월평균 총수입의 원천 ① 세, 이자배당금, ② 자식들의 원조, ③ 근로소득, ④ 연금, ⑤ 국가 자선단체, ⑥ 기타

경제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로, 경제수준상승감 점수와 역코딩한 상대적 박탈감 점수를 합하여 구성하였다. 경제수준상승감은 생활 수준이 10년 전에 비해 '낮아졌다' 1점, '똑같다' 2점, '높아졌다' 3점이고, 상대적 박탈감은 현재소득이나 재산수준이 형제나 자매, 이웃이나 친지와 비교할 때 '더났다' 1점, '비슷하다' 2점, '더높다' 3점의 응답형태를 갖는 3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경제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과정변수

과정변수는 계획과 수행으로 분류되는데, 계획에는 목표설정, 소비표준설정, 예산 책정, 소득과 비용 평가가, 수행에는 소비자 구매, 가계부 기록, 저축 및 투자, 소비자 권리 행사, 소비 습관 검토 및 평가, 유산 분배 계획과 유산 분배 수행이 포함된다. 계획은 5문항, 실행은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대체로 그렇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거의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의 응답 형태를 갖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분석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한 값

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관리를 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변수의 Cronbach α 계수는 .80이었다(재정계획 .72, 재정수행 .73).

3) 산출변수

산출변수는 경제생활만족도로, 하위영역은 소비생활 만족도와 생활표준달성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생활만족도는 일상적인 소비생활에 얼마만큼 만족하는가를 나타내고, 생활표준달성만족도는 생활표준이 달성된 데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는가를 나타낸다. 경제생활만족도는 총 13문항으로 소비생활 만족도 8문항, 생활표준달성 만족도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아주 만족한다' 1점, '약간 만족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불만족한다' 4점, '아주 불만족한다' 5점의 응답형태를 갖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분석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한 값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생활에 만족함을 의미하며 이 변수의 Cronbach α 계수는 .87이었다(소비생활 만족도 .83, 생활표준달성 만족도 .76).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PC SAS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변인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적률 상관관계를 이용하였고,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t-test와 일원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인구·사회학적인 일반적인 특성은 본 연구의 자원변수에 해당되는데, 이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2.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

1) 투입 변수에 따른 재정 관리 (연구 문제 1)
요구변수(재정목표)와 자원변수(11개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수와 경험변수, 주관적 경제수준평가 변수)에 따라 도시 노인단독가구의 재정관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을

<표 2>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변 수	집 단	N (%)	계	변 수	집 단	N(%)	계	
응답자 성 별	남	45(33.3)	135 (100.0)	응답자 연 령	80대이상	17(12.6)	135 (100.0)	
	여	90(66.7)			70-79	56(41.5)		
					60-69	62(45.9)		
배우자 유 무	유	76(56.3)	135 (100.0)	취 업 여 부	하고있음	38(27.9)	136 (100.0)	
	무	59(43.7)			하고있지 않음	98(72.1)		
남편의 퇴직전 직 업	전문기술직	12(11.2)	107 (100.0)	현재의 직 업 (취업한 경우에만)	전문기술직	4(13.8)	29 (100.0)	
	사무직	33(30.8)			사무직	2(6.9)		
	판매서비스직, 숙련노동	37(34.6)			판매서비스직, 숙련노동	10(34.5)		
	단순노무직	22(20.6)			단순노무직	13(44.8)		
	무직	3(2.8)						
총자산	5억초과	18(14.5)	124 (100.0)	월평균 총수입	201만원이상	13(9.8)	131 (100.0)	
	1억초과-5억	24(19.5)			101-200	15(11.4)		
	1001만원-1억	30(24.2)			51-100	40(30.3)		
	1000만원이하	37(29.8)			21-50	37(28.0)		
	재산없음	15(12.1)			1-20	27(20.5)		
월평균 생활비	151만원이상	9(7.0)	128 (100.0)	수 입 천 원 천	재 산 소 득	있음	61(36.6)	132 (100.0)
	91-150	17(13.3)			없음	70(53.4)		
	51-90	22(17.2)			자녀들의 원 조	있음	56(42.7)	
	21-50	49(38.3)			없음	75(57.3)		
	1-20	31(24.2)			근 로 소 득	있음	41(31.3)	
수 입 수	3가지 이상	10(7.4)	136 (100.0)	연 금	없음	90(68.7)		
	2가지	41(30.1)			있음	13(9.9)		
	1가지	85(62.5)			없음	118(90.1)		
				국가사회 단체보조	있음	12(9.2)		
					없음	119(90.8)		

실시하였다(〈표 3〉 참조). 하위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집단간의 차이 검증인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연령, 취업 여부, 현재의 직업, 총자산, 월평균 총수입, 월평균 생활비, 수입원

수, 수입원천 중 재산소득과 자녀의 원조, 중년기 재정관리경험이었다.

연령은 재정관리에 큰 부적인 요인이었는데, 이는 나이가 정규적인 예산 설정(budget formality)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eutler와 Mason(1987)의 연구

〈표 3〉 투입변수에 따른 재정관리

변수	집단	빈도	평균	F값/t	DMR	변수	집단	빈도	평균	F값/t	DMR	
응답자성별	남	45	34.31	t=1.67		응답자연령	80세이상	17	28.29	*** F=11.90	C B A	
	여	90	37.59				70-79	56	34.53			
							60-69	62	40.52			
배우자유무	유	76	38.51	t=-2.51		취업여부	하고있음	38	39.13	* t=-2.04		
	무	59	33.88				하고있지않음	98	35.44			
퇴직전남편의직업	전문기술직	12	45.67	** F=4.96	A AB AB AB	현재의직업	전문기술직, 사무직	6	47.88	* F=4.38	A B B	
	사무직	33	37.64				판매서비스직, 숙련노동	10	38.60			
	판매서비스직 숙련노동	37	32.27				단순노무직	13	34.31			
	단순노무직	22	35.67									
총자산	5억초과	15	40.00	*** F=7.33	A A A B B	월평균총수입	201만원 이상	13	44.25	*** F=5.93	A BC AB BC C	
	1억초과-5억	37	40.76				101-200	15	37.44			
	1001만원-1억	30	40.37				51-100	40	40.23			
	1000만원이하	24	30.08				21-50	37	36.38			
	재산없음	18	30.67				1-20	27	31.41			
월평균생활비	151만원이상	9	43.00	*** F=6.75	A A A A B	수입원천(복수응답)	재산소득	있음	66	39.88	*** t=-3.75	
	91-150만원	17	44.83					없음	70	33.26		
	51-90만원	22	38.74				자녀들의원조	있음	61	33.64	** t=-2.85	
								없음	75	38.77		
	21-50만원	49	37.61				근로소득	있음	46	37.30	t=-0.69	
없음				90	36.04							
1-20만원	31	29.10	연금	있음	18	39.50	t=-1.31					
				없음	118	36.01						
수입원수	3가지 이상	10	46.50	** F=3.94	A AB B	주관적경제수준평가	국가사회단체보조	있음	17	36.96	t=1.41	
	2가지	41	40.15				없음	119	33.06			
	1가지	85	34.62				상	81	37.94	t=1.90		
중년기재정관리경험	상	47	41.07	*** t=5.75		재정목표	하	50	34.12			
							하	89	31.43	상	47	36.15
							하	89	36.64			

* P < .05 ** P < .01 *** P < .001 DMR=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와 일치한다. 취업 여부에서는 취업을 한 집단이 더 재정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을 할 경우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게 되고, 이에 따른 재정 관리의 필요가 높아져 정규적인 관리를 하는 이유에서인 것으로 여겨진다. 전문·기술·사무직이 가장 관리를 잘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대체로 총자산이 많고 월평균 총소득과 월평균 생활비가 많은 집단에서 재정관리를 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입원수는 다양할수록 관리를 해야 할 것이 많아지므로 수입원수가 많을수록 더 재정관리를 잘하고 있었다. 수입원천에 따라서는 재산소득이 있는 집단과 자녀원조가 없는 집단이 더 재정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 자신들이 재산관리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정관리를 더 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자녀의 원조가 있는 집단은 자녀들이 생활비를 보내줌으로 부족할 때 더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관리를 별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중년기 때의 재정관리 경험에 따라 재정관리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중년기 때의 재정관리의 축적된 경험과 습관은 노년기의 재정관리에 차이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2) 투입·과정변수에 따른 경제생활만족도

(연구문제 2와 3)

투입변수인 요구변수(재정목표)와 자원변수(11개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인과 경험변수, 주관적 경제수준평가 변수), 과정변수인 재정관리변수에 따라 도시 노인단독가구의 경제생활만족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집단간의 차이 검증인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연령, 퇴직전 남편의 직업, 현재의 직업, 총자산, 월평균 총수입, 월평균 생활비, 수입원천 중 재산소득과 국가·사회단체의 보조, 재정목표, 중년기 재정관리경험, 주관적 경제수준평가, 재정관리였다.

재정목표가 높은 집단일수록 경제생활은 불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경제생활은 불만족하고, 적을수록 경제생활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생활만족도는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총자산과 월평균 총수입도 낮아짐을 볼 때 80대 노인단독가구의 경제생활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퇴직전 남편의 직업이 전문기술직이었을 때 가장 경제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Abbott와 Maxwell(1986, Sung, 1993)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현재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기술 및 사무직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경제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노동력 참여 여부가 노인의 경제적인 지위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Sung, 1993), 우리나라의 노인의 경우, 취업이라는 것이 자아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취업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재산이 많고 월평균 총수입과 월평균 생활비가 많을수록 경제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특이한 점은 재산이 없는 집단이 1000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만족도가 약간 높았는데, 재산이 없는 집단 내에는 자신의 재산을 명의 이전하고 자식에게 충분히 생활비를 받는 집단과 재산이 전혀 없는 집단이 한 집단 안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수입원천별로 보면,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와 국가·사회단체의 보조가 없는 경우가 경제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재정관리경험의 경우 중년기 때 재정관리를 더 잘한 경우 재정관리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정관리를 통해 만족도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경제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관리를 잘하는 집단은 잘못하는 집단에 비해 경제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획과 수행을 잘할수록 주관적 재정복지를 높게 인식

〈표 4〉 투입변수, 과정변수에 따른 경제생활만족도

변수	집단	빈도	평균	F값/t	DMR	변수	집단	빈도	평균	F값/t	DMR	
응답자 성별	남	45	43.04	t=-0.29		응답자 연령	80세이상	17	37.88	F=3.64	* B AB A	
	여	90	42.54				70-79	56	41.70			
							60-69	62	44.55			
배우자 유무	유	76	43.84	t=-1.76		취업 여부	하고있음	37	39.22	t=-0.07		
	무	59	40.90				하고있지않음	90	39.17			
퇴직전 남편의 직업	전문기술직	12	52.88	F=4.55	A B B B	현재의 직업	전문기술직, 사무직	6	51.88	F=3.06	* A B AB	
	사무직	33	41.91				판매서비스직, 숙련노동	10	36.30			
	판매서비스직 숙련노동	37	43.00					단순노무직	13			40.23
	단순노무직	22	40.36									
총자산	5억초과	15	51.73	F=14.07	A B B C C	월평균 총수입	201만원 이상	13	48.05	F=7.65	*** A AB AB BC C	
	1억초과-5억	37	46.46				101-200	15	45.87			
	1001만원-1억	30	43.00				51-100	40	47.39			
	1000만원이하	24	35.71				21-50	37	42.19			
	재산없음	18	36.11				1-20	27	36.97			
월평균 생활비	151만원이상	9	46.89	F=5.99	AB A AB BC C	수입천 (복수 응답)	재산소득	있음	66	45.77	t=-3.93	
	91-150만원	17	52.17					없음	70	39.59		
							자녀들의 원조	있음	61	41.49		
	51-90만원	22	44.97					없음	75	43.48		
							21-50만원	49	42.86	근로소득		
없음	90	43.51										
1-20만원	31	36.71	연금	있음	18	40.72	t=0.97					
				없음	118	42.87						
수입수	3가지 이상	10	37.75	F=0.59			국가사회 단체보조	있음	17	36.12	* t=2.77	
	2가지	41	42.85					없음	119	43.51		
	1가지	85	42.88									
중년기 재정관리경험	상	73	45.18	** t=3.18		재정목표	상	47	37.09	*** t=-5.32		
	하	54	39.93				하	89	45.49			
주관적 경제수준평가	상	81	46.00	*** t=5.93		재정관리	상	61	44.75	* t=2.42		
							하	75	40.83			
	계획	상	87				44.00	* t=2.30				
		하	49				40.08					
	하	50	36.52				상	40	45.60	* t=2.35		
								하	86			41.57

* P < .05 ** P < .01 *** P < .001 DMR=Duncan's Multiple Range Test

한다는 김연정(1991)의 결과와 일치한다.

3) 재정관리에 대한 투입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
(연구문제 4)

재정관리에 대한 요구 변수 및 인구·사회화적인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성별, 배우자 유무, 수입원천 중 근로소득, 연금, 국가·사회단체의 보조, 주관적 경제수준평가를 제외하였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본 결과 VIF는 모두 10미만으로 문제가 없었으며,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월평균 총수입, 수입원천 중 재산소득, 월평균 생활비는 단순회귀분석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월평균 총수입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연령, 남편의 퇴직전 직업, 취업여부, 총자산, 월평균 총수입, 수입원수, 중년기 재정관리경험을 회귀분석시 포함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분석결과 노년기 가계의 전체 재정관리를 잘 예측하는 변수는 중년기 재정관리경험($\beta=.36$)과 연령($\beta=-.30$)으로 나타났는데, 중년기 때 재정관리를 잘 했고 현재 나이가 적은 노인일수록 재정관리를 잘 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변수가 재정관리의 총분산을 총 48% 설명해 주고 있었다.

4) 경제생활만족도에 대한 투입 및 과정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연구문제 5)

경제생활만족도에 대한 요구 변수 및 인구·사회화적인 변수와 재정관리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정관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산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와,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제외하고 연령, 남편의 퇴직전 직업, 현재의 직업, 총자산, 월평균 총수입, 중년기 재정관리 경험, 주관적 경제수준평가, 재정목표, 재정관리를 회귀분석시 포함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전체 경제생활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로는 주관적 경제수준평가($\beta=.38$)와 재

<표 5> 재정관리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재정관리	
		B	β
연령		-.46	-.30***
퇴직전 남편의 직업		1.55	.05
총자산		-5 ⁻⁵	-.02
월평균 총수입		.02	.16
수입원수		2.24	.14
중년기 재정관리경험		1.11	.36***
상수		46.59	
F값(D.F)		13.33(94)***	
R ²		0.48	

* P < .05 ** P < .01 *** P < .001

<표 6> 경제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표

독립변수	종속변수	경제생활만족도	
		B	β
성별		2.06	.10
퇴직전 남편의 직업		.76	.08
총자산		2 ⁻⁴	.09
월평균 총수입		-5 ⁻³	-.06
주관적경제수준평가		.13	.14
재정목표		2.83	.38***
재정관리		-.27	-.38***
상수		27.89	
F값(D.F)		12.53(91)***	
R ²		0.55	

* p<.05 ** p<.01 *** p < .001

정목표($\beta=-.38$)였는데 주관적으로 경제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재정목표가 낮을수록, 경제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변수는 경제생활만족도의 분산을 총 55% 설명해 주고 있었다.

VI.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노년기에 있어서의 재정관리의 문제점과 경제생활만족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재정관리자의 나이가 재정관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80대 이상 노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을 볼 때, 80대 이상 노인의 경제상태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집단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인식에 의하면 자녀의 원조를 받고 있는 집단의 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들 집단보다는 재산소득이 있는 집단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연금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 또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금과 재산소득이 있는 집단의 경우 일을 하지 않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재산소득이 물가나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연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처럼 물가상승에 대한 위기감이나 부동산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이론적으로는 수입원천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것이라고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입원수가 많을수록 경제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원이 여러 가지일 경우보다는 안정적으로 한가지 소득이 있을 경우에 더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넷째,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경제생활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우리 나라 노인의 경우, 사회에 대한 기여를 위해서나 혹은 자아실현을 위해서 취업하는 비율은 낮고 생계를 위한 취업의 비율이 높다. 상대적으로 자식들의 부양을 받고 있거나 자식들의 원조를 받는 노인과 스스로를 비교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노인이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하든 만족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를 세분화하여 건강하고 취업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취업을 원하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자원 봉사나 여가 활동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등의 노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 분석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

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적용되었던 퇴직전 직업분류의 경우 이러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직업을 가졌던 노인이 상당수 있었다. 이에 노인의 직업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중년기 재정관리경험은 노년기 재정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으로 문항 수를 늘리고 정교화하여 재정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투입변수 중 요구변수인 재정목표의 경우, 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 재정목표가 높은 경우가 많았고, 여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재정목표가 낮은 경우가 부분적으로 발견되었다. 따라서 자원의 영향을 받아 목표가 설정된 것은 아닌지, 즉 재정목표와 재정자원 간의 쌍방향적인 영향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1) 김숙이(1988), 도시 주부의 경제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2) 김순미(1989),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 체계론적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 3) 김연정(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4) 김종숙(1987),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 6) 박계범(1985), 노인의 가정내 역할과 생활만족도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만족도 비교분석-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와 가계 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박정아(1994), 노인단독가구의 환경적 지원성 요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박충선(1990),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 연구, 여성연구 8(3), 115-151.
- 10) 백종식(1991), 한국노인인구의 특성과 노인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이기현(1994), 실버시장의 세분화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이민표(1994), 노인소비자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이성림(1990), 노인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이종혜(1993), 도시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16) 한임섭(1987),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Beutler, I. F., and Mason, J. W.(1987), Family Cash-Flow Budget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6, 3-12.
 - 18) Campbell, Angus, Converse Philip E. & Rodger Willard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19) Davis E. P. and Carr R. A.(1992), Budgeting practices over the life cycl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 3, 3-16.
 - 20) Davis, E. P. and Helmick, S. 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4, No. 1, 123-131.
 - 21) Heck, R. K.(1983), A Preliminary Test of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 7, 117-135.
 - 22) Hogarth, J. M.(1991), Retired Households and asset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 2, 97-121.
 - 23) Rander, D.(1989), Net Worth and Financial Assets of Age Groups in 1984, *Social Security Bulletin* 52(3), 2-15.
 - 24) Titus, P. M., Fanslow, A. M., and Hira, T. K. (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7, No. 4, 309-317.
 - 25) Young-Ae Sung(1993), *The Economic Well-being of Retired Households*, Purdue University Ph Dissertation.